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 창안배경과 실제 연구

성 기 숙

성균관대 강사

I. 머리말	V. 자모식무용표기법의
II.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안배경	선전 및 홍보
III. 김정일의 『무용예술론』의	VI. 맺음말
자모식무용표기법	참고문헌
IV.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실제	ABSTRACT

I. 머리말

무용예술이 지닌 본질적 특성을 감안하면 무용기록 내지 표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용기록 내지 표기와 관련된 문화유산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는 편이다. 문자의 발견이전 선사시대 고고학적 흔적에서 엿보이는 상형문자식 자료라든가 사실성이 강조된 일종의 속기 혹은 기호의 표현에서부터 가장 널리 유포된 라반노테이션(Labanotation)에 이르기까지 무용기록의 자산들은 무용의 학문적 연구에 있어 문자적 사료의 결핍을 보완하는 매우 훌륭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바 있는 『무용보의 역사와 실제』의 저자 앤 허친슨 게스트(Ann Hutchinson Guest)는 책 서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는 기록법의 필자가 계획한 바의 구체적인 사용은 무엇인가?, 둘째는 기록법을 사용하는 자들은 무엇을 기대하는가?¹⁾ 라고 묻는다. 무용기록

을 이해하는데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는 곧 무용기록은 왜 하는가? 라는 본질적 물음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무용기록의 효용적 가치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자모식 무용표기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겠다.

북한은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하여 과학성과 통속성을 지닌, 전세계 유일무이한 무용표기법이라고 자랑한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모식무용표기법은 언어학에서의 자음과 모음에 기초하여 표기부호를 제정하고, 부호의 결합방식 또한 언어학적 논리에 의거하여 자음과 모음의 결합방식으로 귀결돼 있다. 북한은 자모식무용표기법을 그들의 화두가 되는 ‘우리 식’ 주체이념이 반영된 대표적인 산물의 하나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에 북한의 무용표기법이 처음 소개된 것은 정병호·이병옥·최동선이 공동 집필한 『북한의 공연예술 II』²⁾에서였다. 그로부터 약 10여년이 경과한 현재 무용기록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특화된 학회의 발족과 더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들이 표명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하여 거의 문의한이나 다름없는 필자가 북한의 무용표기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작년도 한 학술심포지움에서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연구발표를 접하면서였다. 우선 ‘자모식’이라는 명칭과 부합되게 무용표기의 기호를 자음과 모음의 언어학적 출처에서 찾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움직임 기록하는 데 있어 쉽고 간결하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일단의 호기심이 생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안배경과 실체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작성에 앞서 필자는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원론적 접근」³⁾을 통해 북한의 무용표기법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논문 제목에서 짐작되듯이 원론적 접근에서 시도된 것인 만큼 시론적 내지 본격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이었음은 당연하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자료의 한계가 원인이었다. 그후 연구의 미진함이 걸려

1) 앤 허친슨 게스트, 『무용보의 역사와 실제』, 김말복·조은숙(역, 2001)(서울: 예전사), p. 9.

2) 정병호·이병옥·최동선(1991), 『북한의 공연예술 II』,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p. 91-138.

3) 성기숙(2002),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원론적 접근, 『댄스포럼』, 2002, 5, pp. 64-70.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과 관련된 자료를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집하였고, 본 논문은 바로 새로 입수된 자료를 토대로 씌어진 것이다. 관련자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연극무용가동맹에서 발간하는 공식기관지인 월간 『조선예술』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북한무용표기법과 관련한 비교적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본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다.

논문의 구성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안배경으로써 주체예술이념의 맥락 속에서 자모식무용표기법이 산출되었음을 고찰한다. 아울러 자모식무용표기법이 창안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루게 되는데, 자모식무용표기법이 공표된 시점보다 훨씬 앞선 시대로 소급하여 구체적인 창안경로와 그 흐름을 언급할 것이다. 북한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의한 주체사상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며, 무용예술의 창조작업 또한 이같은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자모식무용표기법이 창안된 것 역시 김정일의 교시에 의해 이루어졌는바, 제3장은 이와 연관된 사항을 북한무용의 이념과 방향이 담긴 대표적인 지침서인 『무용예술론』을 통해 조명해 본다. 제4장은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실제 내용에 대하여 다루게 된다. 표기부호, 부호의 결합방식 그리고 무용보표 및 총보로 나누어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서술될 것이다. 마지막 5장은 자모식무용표기법 창안 이후 대내외적인 홍보와 선전 과정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II.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안배경

1. 주체예술이념과 자모식무용표기법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에 의해 창시된 유일사상체계이다. 주체사상의

예술적 구현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기에 앞서 우선 주체문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체문예는 그 시대에 요구되는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위해 정치적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주적 사상의식을 문예적 실천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문화혁명적 실천의 한 형식이다. 주체문예이론에서 강조되는 개념은 바로 인간이다. 이때의 인간 개념은 정치적 생명을 통해 차별화되어질 수 있는 개별적 주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성 역시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적 실체로서 개별 인격단위의 주체성⁴⁾으로 설명되어진다.

이러한 주체적 문예사상은 문학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하는 하나의 확고한 담보로써 인식되었다. 주체적 문예사상을 구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학예술 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것이다. 주체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혁명의 이익에 부합되며 또한 문학 예술작품을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비위에 맞게 창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문학예술 창작에 있어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의 구현을 강조하면서 이를 당의 방침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곧 내용과 형식의 문제로 귀결되었고, 모든 예술작품은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요구에 맞는 민족적 형식에 혁명적 내용을 담아 그들을 깊이 공감시키면서 동시에 혁명적 신념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⁵⁾

주체예술의 뿌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문학예술로 거슬러 올라간다. 항일혁명 초기에 제국주의 타파와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무용예술의 창작방침이 제시된 바 있다. 이 시기에 있어 무용의 주요 소재는 조국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 혁명투사들의 감동적인 모습, 혁명을 수행하는 인민들의 헌신적 노력과 다양한 생활상이 채택되었고, 형식에 있어서는 군무가 선호되었다. 이는 곧 당성, 인민성, 노동계급

4) 강성원(2000). 북한 주체예술의 당성과 미감의 관계, 『북한 예술의 동향과 전망』, 한국동양 예술학회 제3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동양예술학회, p. 21.

5) 리희섭(1987).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확립의 기본요구, 『조선예술』, 1987. 7, p. 9.

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무용의 전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⁶⁾ 이러한 주체무용 이념은 1990년대 이후 소위 '종자론'에 입각하여 약간의 노선 변화가 있었다. 즉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고양하여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무용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주체예술 창작의 이론적 기초는 이른바 '종자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종자론'은 당정책에 부합되는 사상적 알맹이를 추출하여 이에 모든 형상요소를 집약시키고 예술적으로 가공한다는 주체예술의 창작원리를 규정한 것이다. 종자는 생활에 반영되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며 작품의 가치를 담보하는 핵으로써 종자에 의해 작품의 성격은 물론 사상 예술적 질까지도 좌우된다.⁷⁾ 무용에 있어 종자론은 무용대본으로 귀결된다. 즉 무용창작의 가장 기초가 되는 무용대본에 있어 어떤 종자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자론에 입각할 때 북한무용의 이념은 '우리 식' 사회주의, 즉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로 요약된다. 이는 김정일에 의해 강령에 토대한 교조주의로 정착되었다.

북한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반영한 주체예술적 창작활동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용표기법 제정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른바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안배경은 이렇듯 북한이 추구한 주체예술 이념과도 매우 근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자모식무용표기법이 창안된 것은 1987년이지만, 사업의 발단은 이미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초반에는 주체이론이 하나의 사상으로써 확고한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였으며 무용예술 역시 주체사상을 입각한 창작활동이 보다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 이후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강력한 사회통합 의지의 소산이었다. 그 이전 대내외적으로 부딪혔던 난국적 상황은 생산관계의 변혁과 의식혁명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하였고, 문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기본과제로 떠

6) 김채현(1995). 북한무용 50년 회고와 전망, 『북한문화연구』 제3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 82.

7) 김정일(1992) 『무용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59-61참조.

오르면서 사회통합 의무가 부과되게 된다. 북한예술의 최종 형태로써 주체 예술은 본래 사회적 목적성을 강하게 띤 것이었다. 그것은 북한 내 예술 자체 내의 변화논리에 의거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변동과 요구에 부응한 결과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같이 1970년대 초반 김정일이 무용표기법을 창안하고자 한 배경에는 주체예술의 70년대적 노선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용표기법 고안에 대한 김정일의 의지가 표명된 이후 북한에서는 별도의 무용표기법 연구집단이 조직되었고, 이에 당은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창안된 자모식무용표기법을 북한은 소위 ‘우리 식’의 주체적 무용표기법으로 인식한다.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우리 식’의 예술론은 북한예술에 있어 창작방법의 확고한 원칙으로 적용되었는데, 무용표기법의 고안작업에 있어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북한은 자모식무용표기법에 구현된 ‘우리 식’ 예술이념은 바로 명칭에서도 짐작되듯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결합방식을 차용한 과학적인 체계를 갖춘 명징한 부호의 창제로 귀결된다⁹⁾고 주장한다.

북한은 무용표기법 창안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용예술 건설의 합법칙적 과정이며 그것은 또한 주체시대 인민대중을 위한 것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무할 것을 요구한다고 이해한다. 북한이 자모식무용표기법을 가장 고귀한 인민적인 민족문화유산으로 인식¹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찍이 주체예술의 전형으로써 강조된 민족적 형식의 창출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안경위

북한이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창안하여 발표한 것은 1987년이다. 그러나 자

8) 김채현(1995). p. 81.

9) 성기숙(2002). pp. 65-66.

10) 함원식(1987). 로동당시대에 창제된 자량찬 문화재보-무용표기법, 『조선예술』, 1987. 3, p. 9.

모식무용표기법을 고안하기 위한 북한 무용계의 노력은 훨씬 앞선 시대로 소급된다. 북한의 모든 문화예술의 창작이념 및 실천이 그러하듯 자모식무용표기법이 창안되게 된 동기 역시 김정일의 의지에 의해 발단되었다.

구체적으로 1972년 1월 17일 김정일은 무용예술에 있어 표기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무용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용표기법이 창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무용표기법 창안과 관련한 김정일의 의지는 “우리는 무용예술의 특성과 무용예술 발전의 요구에 걸맞는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주체적 무용표기법을 세상에 내놓아야 합니다”라는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이후 김정일은 5차례에 걸쳐 직접 무용표기법의 창안사업을 실제로 지도하였고 20여차례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새로운 무용표기법을 완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한¹¹⁾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안에는 처음부터 김정일이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 아래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안에 있어 김정일은 물리적인 측면 이상을 능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 1975년 5월 김정일은 조선인민군협주단이 공연한 『샘물터에서』를 관람한 바 있다. 그런데 만수대예술단 공연 때는 7명이 출연한 작품이 조선인민군협주단이 공연할 때는 왜 5명 밖에 출연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이는 정확한 기록을 요하는 무용표기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통찰한다. 음악에 악보가 있는 것과 같이 무용에도 정확한 기록의 표기법이 있어야 작품을 함부로 고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무용표기법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다. 이에 무용표기법 창안사업을 이러한 현실적 당위성에 기반하여 급속도로 추진되었고, 1976년 6월 25일에는 제1차 시안자료가 제출되어 김정일이 직접 검토하게 된다.

이때 김정일은 무용구도 부분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완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무용구도에

11) 함원식(1987), p. 7.

서 1조와 2조가 있게 되는 경우 1조에 몇 명이 나와 춤을 춘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점, 둘째 손동작과 시선까지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 셋째 소도구를 들고 하는 춤도 밝혀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춤 동작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 또는 모든 민족의 춤까지 망라하여 표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함을 일깨웠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무용표기연구집단은 무용동작의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학적 요구에 부합되는 동시에 세계적인 공용문자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한 85개의 기본부호와 기타 형상표, 생략표 등 120여개에 달하는 표기부호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한편 1978년 11월 30일에는 무용표기 창안사업에 있어 김정일의 제3차 교정이 이루어졌다. 120여개에 달하는 무용표기는 기본적으로 결합원칙의 복잡성을 야기하는 것인 바,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호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주체이념에 입각한 무용예술의 통속화도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김정일은 무용표기부호를 언어학에서의 자모에 비유하면서 자모의 결합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적용할 것을 지시한다. 이러한 방식만이 기존의 세계 여러나라의 무용표기법의 한계를 극복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주체적 무용표기법이 완성될 수 있다는 설명인 것이다. 나아가 무용표기부호의 과학성, 논리성을 보장하는 문제, 무용표기보표를 만드는 문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정방향을 제시하였다.¹²⁾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춤동작에 합리적인 이름을 달아 그것을 글로 표기하는 방법, 춤동작을 그림으로 그리고 해설을 달아 표기하는 방법, 춤동작에 약속된 수자를 붙여 표기하는 방법, 음악기호와 약속된 수자를 붙여 표기하는 방법, 춤동작을 도형적인 기호로 표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무용표기방법¹³⁾들이 산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은 김정일의 강력한 지침에 의해 창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민대중을 교화하는데 복무해야 하는 북한

12) 손창준(1999). 주체적인 무용예술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신 불멸의 령도, 『조선예술』, 1999. 9, pp. 8-9.

13) 남용진(1987). 가장 과학적이며 통속적인 우리 식의 독창적인 무용표기법, 『조선예술』, 1987. 5, p. 13.

예술의 기본방침에서 볼 때 일회성이라는 무용예술이 지닌 본질적 특성은 곧 한계로 인식될 수 있다. 우리 식의 주체예술이념을 주창하던 시기 대중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또 무용예술을 보급 전승하는데 있어 무용표기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을 것이다. 무용표기법의 창안의 필요성을 간파한 김정일은 별도의 전문적인 무용표기연구집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에 제도적 또는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주장하는 바,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완벽한 기록체계로서의 무용표기법이 창안된 것이 아닌가 한다.

III. 김정일 『무용예술론』의 자모식무용표기법

1. 『무용예술론』의 개괄적 이해

북한은 추구하는 이념의 특수성에 입각, 김일성과 김정일은 곧 절대시되는 권위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였고 혁명적 문예이론전통을 마련했으며 또 불후의 고전명작을 창작하였다¹⁴⁾고 선전하고 있다. 1990년대 김정일시대의 개막과 함께 북한의 유일사상 역시 그대로 계승되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를 통해 주체사상의 원리와 내용을 집대성 체계화 이래 예술 각 분야의 예술론¹⁵⁾을 출판하여 당의 지도적인 지침서로 활용하게 하였다. 김정일의 저자로 되어있는 『무용예술론』(1992)은 북한무용의 이념과 정책, 창작경향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텍스트이다. 1990년 11월 김정일에 의해 발표되었고, 1992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한 이 책은 대표적인 무용이론서로써 사회주의, 공산

14) 김정웅(1998).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자주시대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 김일성 동지』(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 205.

15)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건축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음악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무용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주의 무용예술의 창조와 건설을 위한 강령적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무용예술론』은 북한의 ‘우리 식’, 또는 주체적 예술이념의 구현에 있어 실천적인 필요에 의해 선보인 김정일의 저작이다. 북한에서는 이를 김정일의 문학예술부문에 이룩한 또하나의 불멸의 업적으로 간주한다. 자본주의사회를 비롯 착취계급사회에 있어 무용예술은 낡고 반동적인 사상문화로 인하여 오염의 굴레를 면치 못했는데, 『무용예술론』이 출간됨으로써 새 시대에 걸맞은 인민지향의 새로운 무용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참다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무용예술론』에 대한 북한의 평가 및 선전은 북한사회 내에서의 통용을 거부한다. 세계무용사적 시각에서 볼 때 고대로부터 무용에 대한 철학적 해명은 계속적으로 있어왔고, 또 문예부흥 이후 발레와 근대의 새로운 무대예술로서의 현대무용의 출현이후 여러 이론들이 제출되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북한의 무용이론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세계 무용계에서 논의된 기존의 무용이론들은 대개 철학과 미학, 종교에 바탕한 무용의 기초이론이거나 분류적 접근, 또는 창작경험을 소개한 것, 그밖에 무용혁신을 위한 단편적인 문제제기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계급의 문예이론에서도 무용은 제외되었으며, 그밖에 무용을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 독자적으로 탐구한 어떠한 이론체계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무용이 다른 예술과 동등한 차원에서 발전하려면 과학적 토대 위에서 창조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의거, 무용의 기초 개념과 범주들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무용이론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확립하여 집대성, 체계화¹⁶⁾한 것이 바로 김정일의 『무용예술론』이라고 설명한다.

『무용예술론』은 제1장 생활과 무용, 제2장 무용창작, 제3장 무용형상, 제4장 무용표기 등 총 4개의 장과 각 장별 20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¹⁷⁾ 마지막 제4장에 차지하고 있는 무용표기 부분은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16) 리만순(1992). 주체적인 무용예술의 창조와 건설을 위한 강령적 지침, 『조선예술』, 1992, 10, p. 6.

17) 이병옥은 『무용예술론』의 체제와 내용은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병옥, 1990이후 우리식 북한무용의 현황과 전망,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전망』, pp. 108-116 참조.

논의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나머지 3개의 장을 이루고 있는 주요 핵심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장 생활과 무용은 1) 무용은 율동의 예술이다, 2) 무용은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발전한다, 3) 혁명적 무용예술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4) 무용은 인민의 다양한 생활을 형상하여야 한다, 5) 민족적 춤형식을 살려야 한다, 6) 무용소품을 기본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7) 여러 종류의 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등¹⁸⁾ 일곱 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무용의 기본 형상대상과 수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주체 예술로서의 무용의 창조적 노선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에 걸맞는 군중무용의 창조와 보급에 대한 내용이다. 인민의 노동을 고취하기 위해 이에 걸맞은 군중무용의 창작을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민족적 춤형식을 살려 주체예술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¹⁹⁾는 대목이다.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무용의 노동계급성과 민족성예의 옹호는 궁극적으로 주체예술이념과 부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장의 생활과 무용은 주체예술로서의 무용의 창작성의 대원칙을 보다 뚜렷히 시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장 무용창작은 무용창작의 실천상에서 요구되는 제반 원칙과 여러 방법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주요내용은 1) 무용대본이 있어야 한다, 2) 안무 구성안이 바로서야 한다, 3) 무용음악이 좋아야 한다, 4) 춤가락은 성격이 뚜렷하여야 한다, 5) 춤구도는 뜻이 선명하고 조형미가 나야한다, 6) 무용의 무대미술은 실감있고 아름다워야 한다²⁰⁾ 등이다. 우선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무용작품을 창작하려면 무용대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용

18) 김정일, 『무용예술론』, pp. 1-58 참조.

19) 무용의 민족적 형식의 구현에서는 창작작업에 앞서 선조들의 춤유산에서 민족적인 색채를 추출해야 함을 전제하고 이때 민속무용 뿐만 아니라 종교무용과 군중무용까지도 망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군중무용과 종교무용은 모두 봉건통치배들의 사상과 감정, 생활이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도 민족적 형식이 일정하게 스며있는만큼 민족적 특성이 가미된 춤가락을 살려 현대적 미감에 맞게 재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현대적 미감은 바로 인민의 미감과 상통된다. 앞의 책, p. 38.

20) 김정일, 앞의 책, pp. 59-106 참조.

대본은 작품의 기본내용을 문학적으로 서술한 것이라 정의내린다. 무용대본에는 무용작품의 종자²¹⁾와 주제사상, 인물의 성격 및 상호관계, 생활정서와 이야기 및 줄거리가 제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무용대본은 무용작품의 창작에 있어 사상 예술적 기초라 전제하면서 문학적으로 완성되고 무용예술의 특성을 살린 대본의 필요성과 함께 무용이 무대형상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안무구성안의 올바른 수립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무용의 창작원리를 올바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용음악을 잘 선택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안무자들이 춤가락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밖에 무용의 예술적 율동 표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춤구도에 대하여도 보다 선명하고 조형적인 표현을 위한 방법들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 『무용예술론』을 통해 춤형상에 있어 조형적·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의상, 소도구 등 무대미술적²²⁾ 측면을 보다 실감나고 아름답게 창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도출되었다고 믿고 있다.

무용형상을 다루고 있는 제3장은 무용배우에 대한 비중이 높이 피력되어 있다. 무용배우는 춤형상의 직접적 담당자로서 무용적 율동 및 형상에 있어 자립적이며 능동적인 창조자라는 인식 아래 무용배우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배우는 춤형상의 담당자이다, 2) 무용배우는 춤을 잘 추어야 한다, 3) 무용배우는 앙상블을 보장하여야 한다²³⁾ 등의 내용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무용창작에 있어 무용배우의 역할론을 강조한다. 무용배우는 작품의 내용과 음악을 깊이 연구하고 충분한 훈련을 통하여 춤동작을 완전히 습득한 다음 무대에서 요구되는 작품의 성격 및 민족적 정서가 넘치는 춤을 출 수 있도록 매개동작을 정확하고 곱게, 그리고 개성적 율동을 살려 춤의 형상창조에 임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다.

21) 무용대본은 종자를 잘 잡아 그에 기초하여 써야하는데, 종자는 작품에 반영되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로서 사상예술적 가치를 담보하는 핵이며 종자에 의해 작품의 성격과 예술적 질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종자를 잘 잡아야 주제와 사상이 명백하고 예술적으로도 훌륭한 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것이데, 이때 무용작품에서의 종자는 당정책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무용예술론』, p. 59.

22) 리만순(1992). p. 8.

23) 김정일, 앞의 책, pp. 107-126 참조.

북한무용에서 무용작품의 형상화에 있어 무용배우의 중요성이 『무용예술론』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에 설파된 무용배우론이 배역의 인물 형상화에 있어 진실하고 생동감있는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다거나 사상과 정서의 교양에 복무하는 이념의 형상창조²⁴⁾에 있는 점에 비해 『무용예술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용배우론의 경우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진 감이 있는 무용배우론에 대한 본격 이론적 체계화 작업이라는 점²⁵⁾에 그 의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용예술론』에 대한 북한 무용계의 반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책이 출간된 후 당 기관지인 『조선예술』은 지속적으로 무용예술론에 담긴 역사적 의의를 지속적으로 기사화하였다. 예컨대 무용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박경실은 『무용예술론』이 출간됨으로써 비로서 주체적 무용예술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세워지게 되었다면서 불후의 고전적 로작 『무용예술론』은 당의 주체적인 무용건설이론으로부터 무용의 창작과 형상, 표기에 이르기까지 무용예술발전에서 제기되는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제반문제들이 체계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서술된 대전서²⁶⁾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피바다가 극단 안무가이며 인민배우인 김락영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무용예술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김정일이 『무용예술론』을 통해 사회주의 무용예술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 주체적인 이론과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안무구성안의 수립문제, 춤가락의 성격을 뚜렷히 가시화하는 문제, 그리고 춤구도와 무용음악, 무대미술 등 무용창작에 관한 모든 실천적 이론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무용예술론』의 출간에 대해 북한무용계는 물론 세계무용 발전사에 있어 획기적인 역사적 사변이라 간주한다. 이것이 발표됨으로써 인류 무용예술은 새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걸맞는 진정한 예술로

24) 정병호·이병옥·최동선(1991), pp. 34-36.

25) 리만순, 앞의 글, p. 8.

26) 박경실(1992), 무용예술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불멸의 대전서, 『조선예술』, 1992. 10, p. 10.

발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용예술론』은 주체의 무용 예술총론으로써 출간 이후 주체이념에 입각한 무용창작에 일대 혁신적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무용예술론』 출간 6주년에 즈음하여 주문길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무용예술론』이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무용예술을 창조 발전시키는데 이론적 실천적 문제들을 체계화, 집대성함으로써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무용예술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²⁷⁾고 피력하였다. 북한의 대표적인 무용학자 리만순은 『무용예술론』에 대하여 인류무용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무용의 본질 및 발생과 발전, 창작과 형상, 표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포괄하여 새롭게 해명하고 그것을 하나의 완결된 과학이론으로 정립한 무용예술총론이며 혁명적 무용예술의 창조와 건설의 강령적 지침²⁸⁾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볼 때 북한사회에 있어 김정일의 『무용예술론』은 무용 예술의 총체적 이론서일 뿐만 아니라 주체예술이념을 구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실천적 지침서였음을 알 수 있다.

2. 『무용예술론』의 자모식무용표기법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은 김정일의 『무용예술론』의 제4장을 구성하고 있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무용예술론』 제4장의 무용표기에서는 무용예술에 있어 무용표기의 중요성과 무용표기법 고안의 기본요구, 새로 만든 자모식무용표기의 우월성과 이용할 때의 문제점,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²⁹⁾ 무용을 제대로 표기할 수 있어야 무용창작과 형상, 보급과 보존사업을 과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요구에

27) 『무용예술론』이 출간된 이래 200여편에 달하는 무용소품과 3편의 무용조곡, 2편의 무용극, 그리고 2편의 가극무용이 창작되는 등 대단한 창작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 자세한 주문길, 주체적인 무용예술 건설과 발전을 위한 강령적 지침, 『조선예술』, 1996. 11, pp. 13-14 참조.

28) 리만순, 앞의 글, p. 6.

29) 김정일, 『무용예술론』, pp. 127-144 참조.

의해 무용표기법이 고안되었으며, 여기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바로 과학성과 통속성이라는 것이다.³⁰⁾ 『무용예술론』이 90년대 이후 북한무용의 이념과 방향이 담긴 지침서라는 점에서 여기에 기술된 자모식무용표기에 관한 내용 또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함축하고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이에 『무용예술론』 제4장을 구성하고 있는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³¹⁾

1) 무용을 표기하는 것은 무용예술발전의 필수적 요구이다.

무용표기의 목적은 무용의 형상수단을 약속된 부호로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한다는 것에 있다. 무용을 표기했을 때 과학적 창작이 가능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무용을 발전시키는 데까지 연결된다. 안무가는 창작작업을 할 때 표기수단을 가지고 춤동작과 춤구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수행하여야 보다 과학적인 안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용을 표기하면서 할 때 안무가는 보다 고양된 단계의 탐구와 사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훌륭한 작품을 잉태하는 밑거름이 된다. 무용작품에 있어 배우(즉 무용수, 이하 무용수라 함)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데, 인물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안무 구성안에 있는 무용기록보는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표현을 가능케 한다. 무용수가 무용을 기록한 무용보를 보면 대본에 제시된 인물의 사상 감정 등 구체적인 무용언어를 깊이 파악하고 보다 창조적이며 훌륭한 작품 형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무용을 대중들에게 보급하는 데에도 무용표기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무용을 표기하면 일반 대중 누구나 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 정서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용표기는 보존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도구가 된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여 창작된 무용작품은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훌륭한 문화유산의 밑천이 되는데, 이때 무용표기는 보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3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 『무용예술론』을 출판」, 『조선예술』, 1992, 10, p. 5.

31) 이하 내용은 성기숙,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원론적 접근」, pp. 66-67과 같음.

2) 무용표기법은 과학성과 통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무용표기법에 있어 과학성과 통속성의 보장은 기본요구이다. 무용표기법은 과학성과 통속성이 보장되어야 다양한 무용작품을 표기할 수 있다. 또한 창작과 형상, 보급과 보존에 있어서도 무용표기는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서 무용표기가 제정되었지만, 잘 보장되지 못한 이유는 과학성과 통속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춤동작을 과학적, 통속적으로 표기하려면 춤동작의 구성요소를 과학적으로 밝힌 것을 부호로 표기하는 것과 함께 매개 요소가 결합되는 이치를 원리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라 부호를 결합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춤동작의 구성요소가 결합되는 이치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 결합방법에 맞게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무용표기법을 과학적, 통속적으로 만드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무용표기법은 춤동작과 함께 춤구도를 과학적, 통속적으로 표기하여야 실용성을 보장할 수 있다. 춤구도를 과학적, 통속적으로 표기하려면 춤구도를 이루는 기본요소를 해명하고 구성요소의 결합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무용표기법에서 과학성과 통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용보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용보표란 무용표기부호를 기입하기 위하여 만드는 보표로써³²⁾ 일종의 악보와 같은 것이다.

3) 새로 만든 무용표기법은 무용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표기한다.

춤동작을 정확하고 간편하게 표기하기 위한 노력은 춤동작의 구성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기본표기부호로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춤동작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부호화하고 그 부호를 기본부호로 정하는 것이다. 무용표기법은 춤동작의 구성요소를 기본표기부호로 정하여 적은 부호를 가지고도 다양하고 복잡한 춤동작을 모두 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춤동작의 구성요소를 기본표기부호로 정한 것은 춤동작이 이루어지는 이치를 과학적으로 분석 해명한 것에 기초한다. 이를 통해

32) 김정일, 『무용예술론』, pp. 131-134.

정립된 춤동작은 크게 가짐과 놀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용표기법은 30여 개의 표기부호를 정하고 그것을 결합하여 여러 가지 놀림과 가짐을 표기하고 놀림과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춤동작을 표기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춤동작을 이루는 요소의 결합방식은 한글에서의 단어를 이루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방식에서 찾는다. 한글 글자의 결합방식에 착안하였기 때문에 무용표기법이 독창적이고 합리적이며 정확하고 간편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이 자랑하는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장점이자 특징이다.

4) 무용표기법을 더욱 완성하고 널리 리용하여야 한다.

무용표기법의 과학성과 통속성은 무용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제사업에 널리 사용될 때 검증될 수 있다. 그 자체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용적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학성과 통속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용표기법의 실용화를 위해 전문연구자들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원리 분석을 통해 보완하고 악보와 같이 쓰기에 편리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자모식무용표기법은 무용작품을 창작하고 보급하는 과학적인 수단으로써 무용가들이 널리 이용할 때 보다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무용가들이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이용하여 작품을 창작하고 형상하고 또한 보급하는 일을 과학적으로 실천할 것을 『무용예술론』에서는 거듭 촉구하고 있다.

IV.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실체와 내용

1. 표기부호 제정³³⁾

자모식무용표기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과학성과 통속성³⁴⁾이

33) 이하 내용은 성기숙,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원론적 접근」, pp. 67-68과 부분적으로 같음.

다. 따라서 표기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 역시 이를 근간으로 삼아 이루어진다. 우선 춤동작의 구성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부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기부호를 만드는 것이다. 표기부호는 춤동작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골라 우선 기본표기부호로 제정한 데서 출발한다. 이때 춤동작의 구성원리의 결합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춤동작이 이루어지는 이치를 과학적으로 해명한 점에 기초해 있다.

북한에서는 춤동작의 기본원리를 놀림과 가짐으로 이루어져 있다. 놀림과 가짐은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볼 때 형태와 자리와 같은 요소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놀림과 가짐은 멈추어있거나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 형태와 자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형태와 자리는 춤동작의 요소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듯 자모식무용표기법은 춤동작의 기본요소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형태와 자리를 나타내는 부호를 정하여 놀림과 가짐을 표기한 것이다.

자모식무용표기법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글자를 이루는 결합방식에 착안하여 고안된 표기법이다. 한글에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하나의 글자가 되고 글자가 결합되어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이치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 즉 한글에서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글자를 이루고 글자가 결합하여 단어를 이루는 원리를 이용하여 놀림과 가짐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요소인 형태와 자리 가운데서 형태부호를 모음으로 하고 자리부호를 자음으로 하여 그것을 결합하여 놀림과 가짐을 나타내고 놀림과 가짐을 결합하여 춤동작을 나타내게 한 것이다.³⁴⁾

무용표기의 실제에 있어서는 춤동작의 모양을 나타내는 4개의 형태와 몸이 움직여지는 특성을 반영한 11개의 놀림을 모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호를 정하고 공간 속에서 몸 부위들이 놓이거나 행해지는 12개의 자리와 7개

34) 자모식무용표기법에 있어 통속성은 “우리가 만드는 무용표기법은 무용전문가들은 물론 공장과 농촌의 예술소조원들과 나이런 소년단원들까지 누구나 다 쉽게 배우고 알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장에 잘 나타나 있다. 평양음악무용대학 음악무용연구소 무용표기연구실,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1)」, 『조선예술』, 1987. 5. p. 47.

35) 김정일, 『무용예술론』, p. 136.

의 방향을 자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호로 인식 모두 34개의 기본부호를 정하고 있다. 이들 부호는 독립적으로 쓰이거나 또는 자모와 결합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무용동작을 표기하게 되는 것이다.³⁶⁾ 이렇듯 자모식무용표기에서 사용되는 표기부호결합방식은 언어학에서 이미 과학성이 입증된 한글의 우수성에 입각하여 착안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이면서도 독창적이라는 설명인 것이다.

자모식무용표기에 있어 각종 부호는 신체의 형상과 한글의 문자적 생김새에 근거하여 고안된 것이다. 우선 한글의 모음에 해당하는 형태, 놀림부호는 움직임의 모양을 나타내는 데 유용하게 쓰이고 놀림부호는 개별적인 신체 부위들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여러 모양을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자리, 방향부호는 몸의 움직임이 진행되는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는 표기로써 한글에서의 자음에 해당된다. 자리부호는 공간 속에서 몸의 부위들이 놓여지거나 무대에서 무용수가 차지하는 위치를 표기하는데 쓰인다. 방향문자는 임의의 자리에서 몸의 부위들이 어느 쪽으로 향해졌는가 또는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여기서 자모식무용표기의 수단이 되는 춤문자의 부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⁷⁾ [자료 ①], [자료 ②].

■ 형태문자 부호

- 편형태 : 몸 부위들이 곧게 편 모양을 표기한 부호
- 휜형태 : 몸 부위들을 곧게 편 형태에서 45도 정도 굽혀진 모양을 표하는 부호
- 굽힌 형태 : 몸부위들을 곧게 편 형태에서 90도 정도 굽혀진 모양을 표기한 부호
- 더 굽힌 형태 : 몸부위들을 곧게 편 형태에서 135도 정도 굽혀진 모양을 표기한 부호

■ 놀림문자 부호

- 돌리기 : 몸부위들이 일정한 지점을 축으로 하여 원이 그려지는 모양을 표기한 부호
- 굽이치기 : 몸부위가 구불구불하게 움직이는 모양을 표기한 부호
- 틀기 : 몸의 연결된 두 부위가 서로 어긋나게 틀어지는 모양을 표기한 부호

36) 박영란(2001). 과학적이고 통속적인 자모식무용표기법, 『20세기 조선민족무용 및 최승희무용예술』, 국제고려학회 연변대 예술연구소 공동주최 학술심포지움 발제논문집, p. 173-174.

37) 평양음악무용대학, 『무용표기법』, 무용표기연구실(1987): 정병호·이병옥·최동선, 앞의 책, pp. 97-102 재인용.

- 흔들기 : 몸부위들을 흔들때(앞뒤, 위아래, 오른쪽, 왼쪽) 나타나는 모양을 표기하는 부호
- 물결치기 : 몸부위들이 물결치듯이 잇달아 움직이는 모양을 표기하는 부호
- 짚기 : 발(손) 또는 개별적 부위들을 몸의 중심과 함께 옮겨 짚는 움직임의 모양을 표기하는 부호
- 돌기 : 몸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한 바퀴 또는 그 이상 돌아가는 움직임의 모양을 표기하는 부호
- 어기기 : 두 팔(두 다리)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움직임을 표기하는 부호
- 넘기기 : 한 팔이 다른 팔(한 다리가 다른 다리)을 넘어 옮겨 놓거나 또는 어떤 대상물을 넘어가는 움직임을 표기하는 부호
- 들기 :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이 춤을 추면서 상대를 들어 올리는 움직임을 표기하는 부호

■ 자리문자 부호

(가) 자리문자 - 기본자리

- 앞자리 : 팔, 다리(또는 개별적 몸부위들)를 몸통 앞으로 90도 정도 들어올린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 뒤자리 : 팔, 다리를 몸통 뒤로 90도 정도 들어올린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 옆자리 : 팔, 다리를 몸통 옆으로 90도 정도 들어올린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 웃자리 : 팔, 다리를 몸통 위로 180도 정도 들어올린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 아래자리 : 팔, 다리를 아래로 내리드리운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 오른쪽자리 : 팔, 다리가 몸통의 오른쪽에 놓인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 왼쪽자리 : 팔, 다리가 몸통의 왼쪽에 놓인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 비킵자리 : 팔, 다리가 앞에서 밖으로 45도 정도 비켜 올린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 올림자리 : 팔의 어깨 높이 자리에서 위로 45도 정도 비켜 올린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나) 자리문자 - 사이자리

- 비킵자리 : 팔, 다리가 앞에서 밖으로 45도 정도로 비켜 올린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 엇비킵자리 : 팔, 다리가 앞자리에서 안으로 45도 정도로 비켜 올린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 올림자리 : 팔의 어깨 높이 자리에서 위로 45도 정도로 올린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 무대자리 : 무용수나 무용구도가 무대에 놓여있는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 내림자리 : 팔의 어깨높이 자리에서 아래로 45도 정도로 올린 위치를 표기하는 부호

■ 방향문자 부호

- 안방향 : 팔, 다리의 굽혀진 모양이 몸 안으로 놓여지거나 그쪽으로 진행되는 움직임을 표기하는 부호
- 밖방향 : 안방향의 반대로 진행되는 움직임을 표기하는 부호

- 세로방향 : 몸통의 옆축을 굴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평면과 같은 쪽으로 몸부위들이 놓이거나 진행되는 움직임을 표기하는 부호
- 가로방향 : 몸통의 앞뒤축을 굴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평면과 같은 쪽으로 몸부위들이 놓이거나 진행되는 움직임을 표기하는 부호
- 굽혀진 방향 : 몸통의 위 아래축을 굴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평면과 같은 쪽으로 몸부위들이 놓이거나 진행되는 움직임을 표기하는 부호
- 무대방향 : 무용수나 무용구도가 행하고 있는 쪽을 표기하는 부호
- 축심방향 : 무용수나 무용구도가 원의 중심을 향하였거나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향해지는 쪽을 표기하는 부호

자모식무용표기는 단순히 신체 움직임 뿐만 아니라 무대공간 안에서의 무용수 구도의 상대관계, 음악적 길이, 또는 소도구 이용까지도 표기 대상에 포함시켜 부호를 제정 표기하고 있다. 몸움직임이 진행되는 자리와 방향은 무대예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무용수의 몸과 무대를 기준으로 구분 단위를 설정한다. 무용구도는 무용수들이 무대에 배열된 상태와 동작을 수행하며 이동하는 길의 모양에 근거한다. 또 2인무로 이루어지는 움직임에 있어서는 상대관계를 고려하도록 짜여져 있다. 즉 무용수의 팔, 다리 등 신체의 부위와 무용수 상호간, 무대구도 상호간, 소도구 이용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대관계 표기원리를 밝혀내고 있다. 상대관계의 표기방법에 있어서는 마주, 나란히, 반사위 원리에 따라 ‘무엇으로’, ‘어디로’, ‘어떻게 잡았는가’, ‘켰는가’, ‘들었는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³⁸⁾ 자모식무용표기에서 상대관계의 원리파악과 이에 기초한 표기화는 어떤 무용형상이라도 모두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는 근거로 충분하다.

2. 부호 결합방식

북한에서는 무용표기법이라는 명칭 앞에 ‘자모식’ 또는 ‘자모결합식’이라는 접두사를 붙이고 있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다. ‘자모결합식’이라 했을 때는 자음과 모음의 구실을 하는 부호들이 상호 결합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38) 정병호 · 이병옥 · 최동선(1991), pp. 93-95.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에서는 언어학에서의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와 방법에 기초한다. 무용예술의 특성에 맞게 입체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움직임들을 형태별(모양), 놀림별(움직임), 자리별, 방향별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다양한 모든 동작을 기록할 수 있는 34개의 무용문자(부호)를 제정하고 이에 준하여 여러 문자들이 상호 자유자재로 결합하여 하나의 춤동작을 표기하도록 고안된 것이다.³⁹⁾

춤동작은 몸부위들의 모양새를 이루는 가짐과 몸부위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놀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가짐이란 일정한 자리에 놓여진 몸부위들의 조형적인 모양새를 말하는 것이다. 가짐은 형태, 자리, 방향, 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며,⁴⁰⁾ 춤동작 표기는 형태와 놀림문자, 자리와 방향문자들을 간결하게 결합하여 무용보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자모식무용표기법에 있어 자음무용문자와 모음무용문자의 결합방식은 어떤 자리에서, 혹은 어느 자리를 걸쳐, 어떤 형태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놀림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입체적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움직임을 간결한 결합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하고 표현⁴¹⁾한다는 데 그 장점이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표기부호 제정과 마찬가지로 부호의 결합방식 역시 언어학의 자음과 모음의 원리에 따르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단순하고 구체적이며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3. 무용보표 및 무용총보

무용보표는 무용표기부호를 기입하기 위하여 만든 보표로써 음악에서의 악보의 오선과 같이 무용의 동작과 구도를 기록하는 표기수단의 하나이다 [자료 ③]. 무용보표 역시 자모식 문자의 특성과 그 결합 원리와 방법, 그리고 몸의 구체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표기부호 제정과 마찬가지로 과

39) 남용진, 앞의 글, p. 14.

40) 평양음악무용대학 음악무용연구소 무용표기연구실, 「자모결합식 무용표기법(2)」, 『조선예술』, 1987. 6, p. 46.

41) 남용진, 앞의 글, p. 14.

학적, 논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고안되었다고 한다. 표기부호를 아무리 단순하게 독창적으로 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하는 보표가 복잡하면 무용표기법은 복잡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무용의 문자부호의 제정과 더불어 그것을 기록하는 수단으로서 3선보의 무용보표를 창안하여 음악의 5선 악보와 같이 과학적·논리적으로 간결하게⁴²⁾ 사용하게 한 것이다.

무용보표는 무용동작보표와 무용구도보표가 고안되어 있다. 우선 무용동작보표는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과 선 사이에 다양한 춤동작을 표기할 수 있다. 춤동작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몸부위들인 머리, 허리, 팔, 다리, 엉덩이의 형태와 놀림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나란히 그 세 개의 가로선을 3선 또는 무용동작보표라고 한다. 3선의 간격과 선의 굵기는 동일해야 하며, 각각의 선의 이름은 웃선, 웃간 가운데선 아래간, 아래선이라고 한다. 3선의 규격은 웃선에서부터 아래선까지 너비에 의해 정해진다. 3선의 규격은 대개 16~30mm까지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상회하기도 한다. 동작보표의 규격에 따라 기록되는 무용의 유형이 다양하게 세분되어 있다⁴³⁾는 것이 한 특징이기도 하다.

3선보표의 쓰임새 또한 다양하다. 맨 위 선상에는 머리동작을, 선의 윗부분에는 어깨동작을, 그리고 선 아래 부분에는 팔의 움직임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 무용동작보표는 춤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몸부위들인 머리·어깨·허리·팔·다리·엉덩이 등의 형태와 놀림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 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 무용구도보표는 선의 윗부분에 춤구도의 모양과 자리, 방향과 크기 등 형태를 표기하고 선 아래 부분에는 무용수의 숫자와 그들의 상대관계를 표기한다.⁴⁴⁾ 따라서 무

42) 남용진, 앞의 글, p. 15.

43) 예컨대, 16mm보표는 음악무용서사시, 음악무용이야기, 무용조곡, 가극무용 등 많은 무용수가 출연하는 작품을 좁혀서 작게 출판하려 할 경우에 쓰인다. 20mm보표는 독무나 군무작품을 표기하거나 총보로 출판할 때, 무용이론서에서 무용작품에 대한 예시를 들려고 할 때 사용된다. 24mm보표는 무용보워기나 춤가락연습을 표기한 독보집을 출판할 때 주로 쓰인다. 30mm보표는 연습곡을 출판하거나 자체로 표기할 때 주로 차용한다. 리봉실(1995), 무용보표쓰기, 『조선예술』, 1995. 9, p. 52.

44) 김정일, 『무용예술론』, p. 137.

용구도보표는 여러 명이 등장하는 군무작품에 있어 공간의 구도와 무용수의 상호관계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된다.

무용보표를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우선 묶음표쓰기와 가늠선 긋기를 잘 해야 한다. 묶음표는 꺾쇠묶음표를 쓰며 그 굵기는 마무리선과 같아야 한다. 가늠선에는 시작선, 소절선, 변박선, 마무리선 등이 있는데, 시작선은 춤 동작이 시작될 때 그으며 소절선은 반드시 음악소절과 일치시켜야 한다. 변박선은 음악의 박자 또는 등장 인물이 바뀔 때, 마무리선은 춤동작이나 작품이 끝날 때 긋는다. 모든 가늠선들은 3선에 직각으로 내려 그으며 여러개의 3선보표와 형상표어들이 삽입되어야 하므로 시작선만 연결하여 긋고 매개 3선에 서절선을 따로따로 긋도록 한다.⁴⁵⁾ 이렇게 무용보표는 3개의 선 위에 다양한 무용동작을 간편하게 표기할 수 있는 장치로써 음악의 5선 악보와 같은 쓰임새를 갖는 것이다.

무용총보는 무용보표를 구성하는 무용동작보표와 무용구도보표를 비롯 무용음악보표를 포함하고 있다. 무용총보는 독무에서부터 쌍인무, 군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춤을 기록할 수 있어 무용작품의 창작과 형상, 보급 및 보존에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눈이 내린다』·『조국의 진달래』·『사과풍년』·『키춤』 등 소위 4대 명작을 비롯 수많은 무용소품과 피바디식 혁명가극의 무용들, 그리고 음악무용서사시 등을 무용총보로 기록하여 영구 보존의 토대를 마련했다⁴⁶⁾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조선예술』에 소개된 4대 명작의 하나인 『눈이 내린다』의 무용총보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자료 ④]. 우선 무용총보로 표기된 부분은 주인공이 2중 무대위에 등장하여 붉은 기폭을 휘날리며 몸을 돌릴 때 주인공을 향하여 모였던 눈정들이 흰수건을 휘날리며 무대로 흩어지는 장면이다. 무용총보의 맨 웃선은 이 장면의 무용음악을 표기한 것이다. 둘째 선은 무용구도보표인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2중 무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과 16명의 눈정들이 가로 네줄 사이사이에 빗겨서서 무대의 3/4에 해당하는 중심

45) 리봉실, 앞의 글, p. 52.

46) 남용진, 앞의 글, p. 15.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고 있다. 셋째 선은 주인공의 춤동작을 표기한 무용동작보표이다. 주인공이 두 팔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왼팔만 안으로 틀어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비켜 올리면서 몸을 돌리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선은 눈정들의 춤동작을 표기한 무용동작보표인데, 16명의 눈정들이 두 팔을 오른쪽으로 힘껏 펴 올렸다 내리며 뒤로 잦은 발걸음으로 나오면서 몸을 돌리는 동작을 묘사한 것이다.⁴⁷⁾

V.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선전 및 홍보

북한은 1987년 자모식무용표기법을 고안한 이래 대대적으로 대외 홍보와 선전에 주력해 오고 있다. 1989년에는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세계 각국의 무용학자를 초빙하여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의 장을 마련했다. 또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 출판하여 세계 각국에 배포하는 등 해외홍보에 적극성을 띠었다. 자모식무용표기법과 관련 『조선예술』에 소개된 북한 내의 평가와 세계 여러나라의 반응을 대표적인 내용만을 뽑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군협주단 안무가 공훈배우 김룡철〉

이번에 우리 식의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이 창제되어 무용실천에 이용됨으로써 구전식 낡은 무용창작과 창조체계를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무용창작 및 창조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우리 안무가들과 무용예술인들은 자모식무용표기표기법을 가지게 됨으로써 안무가가 구상하고 창작한 춤동작과 작품형상을 음악총보와 같이 무용총보에 기초하여 배우들이 자기에게 해당하는 무용보표를 가지고 춤동작과 무용형상을 숙련한 다음 무대 위에서 무용지도원의 지도밑에 앙상블을 맞추면서 작품형상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⁴⁸⁾

47) 「새로 창제된 무용문자」, 『조선예술』, 1987. 4, pp. 57-58.

48) 김룡철(1987). 새로운 무용창작과 창조체계를 확립한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 『조선예술』, 1987. 5.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원 강광국〉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의 창제는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예술과 학의 탄생으로 무용예술을 보다 더 높이 과학화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열어놓았다. 지난 시기 무용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는 무용작품을 기록하는 표기법이 없었던 것으로하여 많은 애로를 느끼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무용표기법이 연구완성됨으로써 이제는 무용예술도 자기의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무용교육에서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춤동작을 배우고 숙련한데 기초하여 지도교원의 지도를 받으면서 더 완성시켜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무용문자로 인쇄된 교과서와 참고서를 가지고 실기교육을 새로운 높은 경지에서 과학성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은 무용예술 창작과 창작, 교육과 과학연구사업 그리고 보급과 보존사업에 남아있는 낡은 방법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⁴⁹⁾

〈평양음악무용대학 예비교육학부 박순희〉

이제 겨우 무용예술의 첫걸음을 내디딘 저로서는 무용표기의 과학세계를 파악하자면 물론 힘들겠지만, 새로 창제된 우리의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의 무용문자와 그 결합원리와 방법을 배우면서 그것이 어찌나 신기한지 저도 모르게 환성을 올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무용표기법은 글자에서 자모결합과 같이 만들어진 것으로하여 보기도 쉽고 쓰기도 편리하며 누구나 다 쉽게 배우고 그 어떤 춤동작도 다 표기하고 독보할 수 있는 무용표기법입니다.⁵⁰⁾

〈중화인민공화국 무용가협회 사대리〉

조선의 무용표기법은 매우 훌륭하다. 조선의 무용표기는 자모식으로 되어 있어 배우기도 쉽다. 또한 조선의 표기법은 손가락 관절마디의 미세한 움직임도 다 표기할 수 있으며 세계의 어떤 복잡한 민족무용도 다 표기할 수 있게 되어있다. 세계에 많은 무용표기법이 나왔으나 이처럼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표기할 수 없다. 세계에 오직 조선의 표기법 밖에 완성된 것은 없다.⁵¹⁾

49) 강광국(1987). 무용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할 수 있게 한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 『조선예술』, 1987. 5, p. 17.

50) 박순희(1987).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은 배우기도 쉽고 표기하기도 쉬운 무용표기법, 『조선예술』, 1987. 5, p. 17.

51) 세계의 어떤 복잡한 민족무용도 다 표기할 수 있다, 『조선예술』, 1989. 1, p. 18.

〈루마니아사회주의공화국 콘스탄틴 떠나쎬극장 안무가 두쭈 콘스탄틴〉

조선에서 새로운 무용표기법을 창제한 것은 무용예술 분야에서 위대한 발견이다. 나는 이전에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면서 무용표기법을 좀 배웠다. 내가 배운 그 표기법을 가지고서는 무용동작들을 제대로 다 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조선에서 창제한 무용표기법은 유치원 어린이들도 인차 체득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완성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는데 조선에서 완성하였다. 각이한 무용동작들을 표기할 수 있는 부호들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것을 결합하고 축소하는 무용문자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조선에서는 무용문자창제사업을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완성하였다.⁵²⁾

〈기술종합대학 과학연구사업에 참여한 씨에그프리드 본 케넬 박사〉

나는 이번 조선방문기간에 인류가 크게 경탄할 크나큰 사변에 직접 접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나는 확실히 행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것은 사람의 한생애 세계사적 사변을 직접 목격하는 행운을 지니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깊이 해부해 볼수록 완벽한 무용표기법을 만들어냈다. 조선의 무용표기법은 보는 순간에 원리가 쉽게 알리며 그 응용방법도 알린다. 이 무용보를 보고는 나도 쉽게 춤출 것 같다. 확실히 14~16세기에 구라파의 문예부흥이 인류에게 문명을 주었다면, 20세기에는 동방의 조선에서 문예부흥이 꽃피어 세상사람들에게 문명의 새시대를 펼치고 있다.⁵³⁾

그 밖에도 『조선예술』은 크고 작은 기사를 통해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는데 주력하였다. 1987년 5월호 『조선예술』은 유네스코 문학예술창조과장과 40여년간 무용표기를 연구해온 외국의 무용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자모식무용표기법의 독창성과 과학성, 통속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무용표기법은 매우 복잡한 과학이어서 그것을 만든 나라가 많지 못한테 조선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무용표기법을 만들어냈다. 조선의 무용표기법은 아주 쉽게 이해되고 세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호의 가운데 둥근원을 놓고 부호들을 서로 간편하게 결합한 것은 아

52) 무용예술분야에서 위대한 발견이다, 『조선예술』, 1989. 4, p. 12.

53) 인류가 크게 경탄할 크나큰 사변, 『조선예술』, 1990. 3, p. 50.

주 기발한 착상이다. 매우 논리적이다”⁵⁴⁾라는 인터뷰를 첨부하고 있다.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북한의 선전과 홍보는 실로 범세계적이다. 1989년 10월 26일에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자모식무용표기법실현모임이 진행되었다. 국제무용이사회 위원장, 부위원장, 프랑스무용전문가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이에 참가하였으며, 하나같이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제를 경이롭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과학영화로 제작된 자모식무용표기법에 관한 영화 상연도 있었다⁵⁵⁾고 한다. 북한은 자모식무용표기법 창제이후 그것이 보급과 전승뿐만 아니라 해외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영화화를 시도하였다. 이 과학영화에는 북한의 무용수들은 물론 유학생들까지 출연했다. 아프리카에서 평양에 유학온 싸무엘은 “나는 조선에서 새롭게 만든 무용표기법을 소개하는 과학영화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나의 일생에서 행운 중에 행운을 만난 사람이다. 나는 아프리카지구에서 처음으로 조선의 무용표기법을 배운 창작가가 될 것이다”⁵⁶⁾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예술』은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세계 여러나라의 반향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 1990년에는 자메이커 신문 자매지인 『자메이커리코리아』에 게재된 「조선에서 새로 창제된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소개, 해외에서의 북한무용표기법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김일성이 유능한 안무가들과 배우들로 하여금 강력한 연구집단을 조직케하여 자모식무용표기법 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표기법의 실재를 소개하였다⁵⁷⁾고 쓰고 있다.

북한은 자모식무용표기법의 대중적 활용을 위해 무용표기 타자기와 컴퓨터를 개발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아울러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안 이래 소위 4대 명작을 비롯, 100여편에 달하는 무용작품들이 무용총보로 기록되었다고 자랑한다. 또한 이 표기법을 통해 무용작품 뿐만 아니라 집단체조와 교예, 병상과 피겨스케이팅까지 망라하여 표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무

54) 대단히 훌륭한 무용표기법-우리나라 무용표기법에 대한 반영, 『조선예술』, 1987. 5, p. 50.

55) 우리나라 자모식무용표기법실현모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진행, 『조선예술』, 1990. 1, p. 43.

56) 인류가 크게 경탄할 크나큰 사변, p. 50.

57) 조선에서 새로 창제된 자모식무용표기법, 『조선예술』, 1990. 4, p. 67.

용표기법은 작품창작과 형상성 창조, 보급과 보존, 과학적 연구와 교육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자부한다. 북한은 자모식무용표기법을 고안한 이래 꾸준히 수정 보완작업을 곁들이고 있는데, 이는 평양음악무용대학 부설 무용표기연구실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VI. 맺음말

무용표기법은 무용의 창작과 교육, 작품의 재현과 복원, 보급과 전승의 차원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무용의 양식사 및 안무스타일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긴요하게 쓰인다. 따라서 무용표기법에 대한 인식 또한 무용적 움직임을 기록하는 하나의 기호 내지 부호로서의 원론적 효용성을 능가하여 무용사·무용학·안무학의 연구영역까지 적용되는 다원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점차 확대돼 가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 하나의 무용표기법이 새로 창안되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창조적 행위인 만큼 거기엔 분명 그 사회특유의 문화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우리 식’ 사회주의에 입각한 주체예술이념이 반영된 대표적인 생산물로 간주한다.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창안에서 요구된 과학성과 통속성의 보장은 결국 북한예술이 추구한 주체이념과 근접성을 맺고 있는 것이다. 예술창조에서 요구된 주체의식은 자모식무용표기법에 있어 자음과 모음을 근거로 한 부호의 제정과 그것의 결합 방식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은 과학성과 통속성에 독창성을 곁들여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무용기록체계라고 자모식무용표기법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할 것은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이 획일화된 이념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북한사회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탄생된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그것에 대한 앎에 있어서도 그러한 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미리 감안하고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무용표기법을 맹목적으로 찬양하

거나 차용하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또 동시에 이와 반대로 우리와는 상이한 체제와 이념속에서 산출된 것이라는 단순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하여 무조건 배척하거나 등안시하는 자세 또한 절제할 일이다. 문제는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내포된 효용가치는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용표기법에 서려있는 환경과 조건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는 보다 자명해진다. 원론적 제안이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다시피 한 라반노테이션은 서양인에 의해 서양문화(춤)의 테두리 속에서 생성 발전돼온 기록체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춤의 특질로 회자되는 정중동(靜中動)의 미학, 신명(神明)풀이, 기(氣)의 운용, 즉흥성과 다양성 등 움직임의 원리와 구조, 감성과 미학적 포인트가 과연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온전히 라반노테이션 표기로 가능할 것인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도된 본 연구가 얼마만큼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하여 충실히 소개하고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다만,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개괄적 지식과 함께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는 본 논문이 읽혀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논지 속에서 필자가 잘못 이해한 탓으로 다소 비약된 부분이 더러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추후 바로잡는 기회를 가져보기로 하겠다.

• 표 자료출처

[자료 ①] / 정병호 · 이병옥 · 최동선, 『북한의 공연예술 II』(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1). p.96

[자료 ②] / 상동 p.99.

[자료 ③] / 상동 p.105.

[자료 ④] / 『조선예술』, 1987. 3.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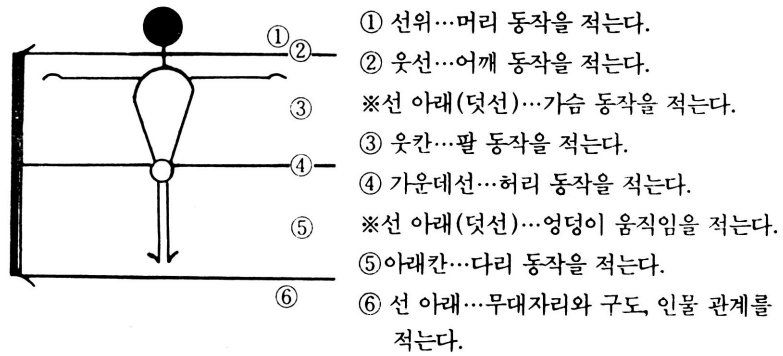
(자료 ①, ②, ③, 은 『조선예술』에 수록되어 있으나 상태가 깨끗하지 않아 『북한의 공연예술 II』에 수록된 자료를 재인용 게재함)

형태, 놀림(〈모음〉)				자리, 방향(〈자음〉)			
구분	번호	문자	이 름	구분	번호	문자	이 름
형 태	1	ㄴ	편 형태	자 리	1	○	앞
	2	ㄴ	편 형태		2	○	뒤
	3	ㄴ	굽힌 형태		3	⊖	옆
	4	ㄴ	더 굽힌 형태		4	⊖	우
놀 림	5	e	돌리기		5	①	아 래
	6	ㄱ	굽이치기		6	⊖	비 킴
	7	ㄴ	틀 기		7	⊖	엇비킴
	8	ㄴ	흔들기		8	ㄷ	오른쪽
	9	~	물결치기		9	ㄷ	왼 쪽
	10	L	짚 기		10	˙	울 림
	11	l	돌 기		11	˙	내 림
	12	Λ	뛰 기		12	+	무대자리
	13	ㄴ	어기기	방 향	13)	안
	14	ㄴ	넘기기		14	(밖
	15	u	들 기		15	↑	새 로
					16	→	가 로
					17	←	놓 혀
					18	↓	무대 방향
					19	○	축 심

〈자료 ①〉 무용문자(표기부호)

구 분	돌림길놀림			오가는 놀림		온몸동작		
이 름	돌 리 기	굽 이 치 기	틀 기	흔 들 기	물 결 치 기	짚 기	돌 기	뛰 기
제 근 거								
문자의 모 양	e	ㄱ	ㄴ	ㄴ	~	L	l	Λ

〈자료 ②〉 무용문자의 제정근거와 모양



〈자료 ③〉 무용보표의 모양과 구분

+(2중무대) + 16 (C 사이)

☆	3	1	2	4
	7	5	6	8
☆	11	9	10	12
	15	13	14	16

전체

〈자료 ④〉 무용총보 『눈이 내린다』

■ 참고문헌

- 김경희 편저(1998). 『라반노테이션』, 서울: 풀빛.
- 김정일(1992). 『무용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강광국(1987). 「무용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혁신할 수 있게 한 자모결합 식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87. 5.
- 김룡철(1987). 「새로운 무용창작과 창조체계를 확립한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87. 5.
- 김정웅(1989).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자주시대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 김일성 동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김재홍 · 유영근(1999). 『무용예술의 기초』, 평양: 한국문화사.
- 강성원(2000). 「북한 주체예술의 당성과 미감의 관계」, 『북한예술의 동향과 전망』, 한국동양예술학회 제3회 학술심포지움 발제논문집, 한국동양예술학회.
- 김채현(1995). 「북한무용 50년의 회고와 전망」, 『북한문화 연구』 제3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남용진(1987). 「가장 과학적이며 통속적인 우리 식의 독창적인 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87. 5.
- 리만순(1992). 「주체적인 무용예술의 창조와 건설을 위한 강령적 지침」, 평양: 『조선예술』, 1992. 10.
- 리봉실(1995). 「무용보표 쓰기」, 평양: 『조선예술』, 1995. 9.
- 리희섭(1987).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확립의 기본요구」, 평양: 『조선예술』, 1987. 7.
- 박경실(1992). 「무용예술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불멸의 대전서」, 평양: 『조선예술』, 1992.
- 박순희(1987).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은 배우기도 쉽고 표기하기도 쉬운 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87. 5.

- 박영란(2001). 「과학적이고 통속적인 자모식무용표기법」, 『20세기 조선민족 무용 및 최승희무용예술』, 국제고려학회 연변대 예술연구소 공동주최 국제무용학술심포지움 발제논문집.
- 주문길(1996). 「주체적인 무용예술 건설과 발전을 위한 강령적 지침」, 평양: 『조선예술』, 1996. 1.
- 정병호 · 이병옥 · 최동선(1991). 『북한의 공연예술 II』,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성기숙(2002). 「북한의 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원론적 접근」, 『댄스포럼』, 2002. 5.
- 손창준(1999). 「주체적인 무용예술건설의 새 역사를 펼치신 불멸의 령도」, 평양: 『조선예술』, 1999. 9.
- 앤 허치슨 게이트, 김말복 · 조은숙 역(2001). 『무용보의 역사와 실제』, 서울: 예전사.
- 이병옥(2001). 「1990년대 이후 우리 식 북한무용의 현황과 전망」,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전망』, 제3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학술심포지움 발제논문집.
- 한국무용기록학회(2001).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창간호, 한국무용기록학회.
- 함원식(1987). 「로동당시대에 창제된 자랑찬 문화재보 - 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87. 3.
- 평양음악무용대학 음악무용연구소 무용표기연구실.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 (1)」, 평양: 『조선예술』, 1987. 5.
- 평양음악무용대학 음악무용연구소 무용표기연구실.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 (2)」, 평양: 『조선예술』, 1987. 6.
- 평양음악무용대학 음악무용연구소 무용표기연구실. 「자모결합식무용표기법 (3)」, 평양: 『조선예술』, 1987. 7.
-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4대명작 무용충보- 조국의 진달래』, 평양: 문예출판사, 1988.
- 『자주시대 문학예술의 위대한 영재 김일성 동지』,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8.

- 「가장 과학적이며 통속적인 우리 식의 독창적인 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87. 5.
- 「대단히 훌륭한 무용표기법- 우리나라 무용표기법에 대한 반영」. 평양: 『조선예술』, 1987. 5.
- 「새로 창제된 무용문자」. 평양: 『조선예술』, 1987. 4.
- 「우리식 무용표기법의 창제는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 평양: 『조선예술』, 1988. 2.
- 「세계의 어떤 복잡한 민족무용도 다 표기할 수 있다」. 평양: 『조선예술』, 1989. 2.
- 「무용예술분야에서 위대한 발견이다」. 평양: 『조선예술』, 1989. 4.
- 「우리나라 자모식무용표기법실현모임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진행」. 평양: 『조선예술』, 1990. 1.
- 「인류가 크게 경탄할 크나큰 사변」. 평양: 『조선예술』, 1990. 3.
- 「조선에서 새로 창제된 자모식무용표기법」. 평양: 『조선예술』, 1990. 4.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작 『무용예술론』을 출판」. 평양: 『조선예술』, 1992. 10.

Abstract

Study on the Creation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 Consonants and Vowels Combined Notation of Dance in North Korea

Gisuk Seong
Lecturer of Dance
Sung Kyun Kwan University

Although the consonants and vowels combined notation of dance in North Korea was created in 1987, its history is effective from early 1970s. The Dance Notation Research Organization was formed by Kim Jong Il's order then, and the notation was made in 1987 under the Party's continuous interests and supports. This notation is, first, based on scientificity and commonness. North Korea is proud that it can be learned and notated easily.

The consonants and vowels combined notation of dance, as seen in the 'consonants and vowels combined' of the name, is combined with consonants and vowels in linguistics, which was devised in North Korea. It is composed of notation marks, combination of marks, dance score and dance full score. North Korea regards the notation as a representative product that reflects the *juch'e* art ideology based on 'its unique' socialism. In addition, North Korea is carrying on propaganda that it is a world's sole dance notation system with scientificity, commonness and originality. It is thought that more interests shall be taken in the consonants and vowels combined notation of North Korea, in the aspect that dance notation is expanded into the fields of dance history, dance literature and choreography beyond its effect as a mark just notating dance movement.